coupang newsroom

# [보도자료] 쿠팡, 우수 중소기업과 손잡고 가성비 PB상품 개발 확대..고객·  ‘윈윈’

2025. 8. 4.

엘르파리스 EGF 비타민 앰플 상품

- 쿠팡, 뷰티PB ‘엘르파리스’의 신상품 포함해 생활필수품  문구용품 등 PB상품 잇달아 출시
- PB 제조사, 마케팅  유통은 쿠팡에 맡기고 연구 개발에 힘써  ”협업 경험 늘수록 기업 역량도 높아진다”

2025 08. 03. 서울 -쿠팡이 PB 신상품을 지속 출시하며 고물가 시대에 고객의 장바구니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1호 '탐사'를 비롯해 생활필수품부터 가공식품  문구용품  의류  생활가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 30여개를 론칭, 운영 중이다.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자 우수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늘리며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쿠팡은 뷰티 PB '엘르파리스'의 신제품 7종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시 제품은 두 가지 라인으로 구성됐다. 'EGF 비타민' 라인은 세럼과 시트마스크, 앰플 등 3종이며, 피부 활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EGF(Epidermal Growth Factor) 성분을 담았다. 특히, 앰플은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리포좀 공법을 적용했다.

'엑소 하이드라' 라인은 앰플, 버블워터, 시트마스크, 수딩크림 등 4종으로, 보습에 특화된 제품군이다. 피부 수분 공급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히알루론산'과 '식물성 엑소좀'을 함유해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케어를 돕는다.

엘르파리스 EGF 비타민 세럼 상품

엘르파리스 엑소 하이드라 라인 상품

생활용품 카테고리의 신상품도 다양하다. '탐사'의 신상품은 '베이직 클리어파일' '행운이 가득한 집 만년형 가계부' 등으로, 클리어파일은 4개 세트로 구성됐으며, 가계부는 하드커버로 제작되어 튼튼한 게 특징이다. '코멧'은 수영장용 아기 기저귀 '베이비 스위밍 팬츠' 특대형과 대형 등을 신규 출시했다. 개별 포장되어 있어 보관 중 오염 걱정 없이 위생적이며 외출 시 필요한 수량만 챙겨 가방 공간을 절약하는 등 휴대가 간편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활물가지수(7월 기준)가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월 대비 2.3~2.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화장품 및 생활필수품 관련 품목은 각각 최대 4.9%, 4.4% 수준의 상승률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크게 상회한다. 이번 쿠팡 PB 신상품들은 1만 원 내외 가격에 형성되어 있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멧 베이비 스위밍 팬츠 상품

쿠팡 PB 상품 제조사들은 쿠팡의 전국 물류망을 활용해 마케팅  유통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구개발에만 집중, 합리적인 가격에 개발하고 있다. 양지혜 피에프네이처 대표는 “보통 EGF나 비타민 유도체가 포함된 기능성 스킨케어 라인의 제품가는 일반적으로 3~5만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쿠팡의 PB상품은 가성비 있다고 자부한다”며 “브랜드사 납품만 했을 때보다 쿠팡에 직접 판매 시작 후 고객들의 반응을 빠르게 확인, 곧바로 연구 개발에 반영하는 만큼 기업 역량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쿠팡과 협업 후 4명을 추가 채용했으며 올 연매출은 이전보다 50억 원가량 늘어난 300억 원을 바라본다.

CPLB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중소기업 파트너들을 발굴하고 협업하며 고객에게 양질의 가성비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